

## 후기

나에게 있어서는 둘도없는 모국어·일본어. 그 일본어의 시스템이 내 속에 살아있다. 사랑스러움조차 느껴지는 이 내재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구조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하고 싶다. 다행히,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주어져 있다.

살아 작동하는 일본어 시스템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충동에 쫓겨 여기까지 왔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공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연구를 시작한 대학원생 시절에는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가 걱정이었다. 벌써 25년 이상의 과거의 일이다. 다행히 여기까지는 왔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아직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든다. 게다가, 아직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있으므로 여기서 멈춰설 수는 없다.

이제부터 풀고 싶은 주된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            |                        |
|------------|------------------------|
| · 격분류의 원리  | · 실체구성의 원리             |
| · 실체분류의 원리 | · 노연결의 원리              |
| · 조건표현의 원리 | · 구조연속묘사(문과 문의 접속)의 원칙 |

또 「각 형태·형태소의 통일적인 자세한 기술(記述)」이라고 하는 일도 있다. 이 기술은 사전(辭書)에서의 기술보다는 훨씬 자세한 것이 될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DNA라고 하는 하나의 정보의 실로 기술하여 나눌 수 있다. 형태·형태소에도 DNA를 설정하자. 그리고 모든 형태·형태소를 정보의 실로 기술하여 나누자. 「나누다」라는 작업이 이해를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의 과제가 목전에 있으면서도, 힘이 못미치는 결과에 이르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쉽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것은 해 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신 분의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다.

그럼, 본서의 다음 부분은 지금까지 『교린대학 외국어학부 기요』에서 발표해 온 논고가 기초가 되어 있다. 단, 약간 수정하고, 많이 첨가하여 적은 부분도 많다.

제 I 부 「일본어구조전달문법·서론」 『기요(紀要)』 제7호 1995

제 II 부 「일본어구조전달문법(2)」 『기요』 제8호 1996

제 III 부 「일본어구조전달문법·서론」 『기요』 제7호 1995

제 IV 부, 제 V 부 「일본어구조전달문법(4) -시제와 흐름, 상(相)은 배-」 『기요』 제10호 1998

제 VII 부 「일본어구조전달문법(3) -복주체(複主体)-」 『기요』 제9호 1997

제 VIII 부 「일본어구조전달문법(5) -시공부정(時空否定)/시제·상(相) 2자리수(桁數) 표시-」 『기요』 제11호 1999 (재외연수시의 연구)

여기에 게제하지 않은 부분, 곧 제 VI 부, 제 IX 부~제 XIII 부는, 1998년도의 재외연수(한국·고려대학교)에서의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또, 제40장(제 VIII 부)는 「일본어구조전달문법의 시점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학문에의 권장(学問のすすめ)』 (杏林JEC 특별호 1996)에 실렸던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본서를 쓰는데에 도형을 그릴 필요가 있었는데, 도형프로세서는 저스트시스템사의 「花子」를 사용했다. 워드프로세서는 同社의 「一太郎」를 사용했다. 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을 사용한 것도 있다.